

워싱턴 Virginia 지부 동창회 모임

추석 명절을 기하여 9 월 18 일, 수요일, 정오에 Virginia, Fair-Oak Mall 에 위치한 Breakers 식당에서 금년에 두번째로 모임이 있었다. 59 년 졸업 한달수 선배님을 비롯하여 총 24 명의 동문과 배우자, Jamie Kim 동창회사무장을 합하여 45 명이 참석했다. 주 중이고 일하는 시간이라 개업하고 있는 동문들이 빠졌다. 그중에는 58 년졸업하신 이종국 선배님도 진료시간이라, 환자를 보는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다.

조병선(71) 동문의 리드로 서울대학교 교가 합창이 있었고 모두들 기립하여 우렁차게 불렀다. 앞으로 얼마나 여러번 교가를 부를 수 있겠느냐는 그의 말이 짙하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두들 경외로운 자세로 노래를 2 절 끝까지 불렀다.

신용계 동문의 재무보고가 있었고 Maryland 에서 2 시간 운전해온 신백효(65)-강성려 님 부부 소개가 있었고, 수년전에 Detroit 에서 Virginia 로 이사를 왔지만 오늘 처음 동창회에 참석한 장현식(70) 님이 자기소개를 했다.

이어서 Jaime Kim 동창회사무장의 인사말과 뉴욕에서 Virginia 로 옮기게된 소감을 말하고 내년 4 월 10-13 일 이곳, Westin Hotel 에서 있을 학회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참가한 모든 동문들이 한분한분씩 각자 자기 소개 시간을 가졌다. 한식 부페로 시작된 점심을 들면서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식사가 끝날 무렵 Fairfax Inova Hospital meeting 중 틈을 내서 서둘러서 참석한 우리 제 53 대 의대 미주 총동창회장인 남명호(81) 동문의 인사말이 있었고 지난 주 서울방문에 대하여 또 의료대란으로 일어나는 어려운 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후배들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미주 동창회가 대처하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한승신(76) 동문이 금년부터 자신부부의 은퇴후 미주의대동창회에 기부하는 매년

5 만불의 장학금에 대한 장학생 선발과정과 그 결정을 알려주었다. 참석한 모두들은 큰 감동을 느끼고 마음 속 깊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번 한국의 의료사태는 심각하고 그 여파로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동창회 편집장 서윤석은 책임을 지고 있는 이미 배부된 Directory-2024 년 발행 경위와 애로사항 또 인쇄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그 수습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50 주년 기념 문집-화집의 편집과정과 규모, 출판계획을 설명했다.

사회는 주광국(68) 님이 맡았고 이날 참석한 동문의 성함은(존칭 생략)

**한달수(59), 진창건(61), 고영희(63), 이종두(63), 이병봉(63), 신백효(65), 이중희(65),
채무원(65), 김주평(68), 김 철(68), 김진홍(68), 주광국(68), 신용계(68), 서윤석(68),
김병오(69), 박수웅(69), 장현식(70), 박동수(71), 양성훈(71), 조병선(71), 김제홍(71)
배영훈(75), 박인영(75), 남명호(81)** 이상 24 동문과 그 배우자를 합하여 총 45 명이다.

이 모임을 준비하느라고 68 년 졸업 회장단의 여러 부인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다.

글; 서윤석

